

# 남북 손 맞잡아주고 떠난 DJ

### 경색 급속히 완화 현안 포괄적 타결 북핵 해소도 기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서거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경색됐던 남북 관계의 해빙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은 김 전 대통령이 생사의 기로에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던 평생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치인생 전반을 통해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DJ가 사후에도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 남북 관계와 DJ의 열정 = 지난 30여년 동안 '색깔론' 등 온갖 음해와 박해를 감수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에 대한 신념을 꺾지 않았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초석을 놓았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충고와 고언을 쏟아냈으며 폐렴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남북관계에 대한 각종 연설과 기고를 통해 끊임없는 열정을 불태웠다.

이를 반영하듯 김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인 지난달 10일 영국 BBC와 북한 핵 문제와 6자 회담, 북미관계 등에 대해 인터뷰했으며 13일에는 기력이 약해지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만나 회담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유류연합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할 내용을 구술을 통해 작성하는 등 남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이날 원고는 사실상 마지막 연설문이 됐다.

동교동계 관계자는 "남북화해는 김 전 대통령의 평생의 숙원"이라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DJ가 하늘에서라도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조되는 남북 화해무드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경색됐던 남북 관

계가 DJ서거에 따른 북측 조문단 파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DJ의 서거를 계기로 형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연안호 송환 문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남북 간의 포괄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본질적으로 개선·되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북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형국이기에 때문이다.

따라서 DJ의 서거를 계기로 형성된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이 다소 완화되면서 추후 고위급 당국자들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이 모두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갖는다면, 여러 현안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 김정일 "DJ, 민족위해 많은 일 하셨다"

### 北 조문단 이희호 여사 만나 메시지 전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회고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면서 "김 전 대통령이 하셨던 일을 유가족이 잘 이어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을 찾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지난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한 김 비서편으로 이희호 여사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DJ측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러나라에서 조문단이 오겠지만 남보다 먼저 가서 직접 애도의 뜻을 표해야 한다. 사절단의

급도 높이라"면서 "여사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는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김 전 대통령 유족에 보내는 조문 원본을 낭독하고 이를 이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여사는 사의를 표시한 뒤 "김 전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여러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오늘 만남이 남북대화가 계속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한 민족을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는 일이 새롭게 전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지만 민족 화해와 통일이 실현되면 지하에서도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측 조문단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21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대중 前 대통령의 영결식에 부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전직 대통령 으로서는 첫 국장으로, 국가 최고의 장의 절차답게 명실 공히 온 나라가 기지를 켜며 일어 서듯이 장중하게 치러지고 있다.

이 나라 건국 이래, 그리고 우리 서울 5백년 역사 속에,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것이 생긴 뒤로, 뿐만 아니라 현 국회의 의사당이 건립되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의 장례로 온 지구촌의 이목까지 모으며 이만한 초거대 행사로 치러진 때가 일찍이 언제 한번 인들 있었을까.

이렇게 서울을 비롯,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온 언론이 온통 그이의 서거로 난리법석, 북한에서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 접 지시로 조문 사절단이 다녀갔다.

한데 놀라지 마시라. 바로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곳으로 말한다면 이 나라 남서쪽 끝의 목포에서도 뱃길로 두어시간 나가야 하는 자그마한 하의도라는 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강촌 중의 최고 강촌.

이렇게 서울을 비롯,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온 언론이 온통 그이의 서거로 난리법석, 북한에서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 접 지시로 조문 사절단이 다녀갔다. 한데 놀라지 마시라. 바로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곳으로 말한다면 이 나라 남서쪽 끝의 목포에서도 뱃길로 두어시간 나가야 하는 자그마한 하의도라는 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강촌 중의 최고 강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만 해도 그

서 15년만에 고향을 찾아온다고 해서 그나마 단장을 한 것이 이 정도 "라면서 신안군 14개 읍면 가운데 가장 개발이 못 되고 낙후한 곳이 바로 이 하의도라고 하더라.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분도 "이 섬 주민들은 그이께서 국정에 전념 하시라고 귀찮게 헤드리지를 앓았다. 상대적으로 하의도가 도리어 소외와 역차별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 어떤가. 그이가 태어났던 고토는 아직도 바로 저런 지경인데, 정작 그 하의도의 영웅, 하의도의 자랑이자 영광의 그 주인공인 저 거인께서는 바야흐로 2009년 8월 23일 오늘, 이 민족이 겨레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촌 전 세계 인류의 열화와도 같은 애도 속에 저렇듯 장중한 모습으로 저승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 바로 이런 것이 실은 우리네 사람들 사는 참 모습이 아닐런지... 아아, 이 점을 곰곰 씹어 볼수록 무언지 아연해지는 느낌도 전혀 없지는 않다.

### 건국 이래 그 누구가

### 이토록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 장중하게 떠나는 이 있었는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첫 출마했던 1971년 불부 터 남다른 인연을 맺으며, 1980년에 그이가 육군본부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을 때는 같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다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섬에는 한번도 가 보기는 커녕, 가 볼 엄두조차 못 냈었다.

한데 듣자 하니, 그 섬, 하의도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돌섬 하나가 있다고 한다. '죽도' 일명 '대섬'이라고도 하는 바위로 높이 20여 미터의 동쪽 절벽이 사람의 옆 얼굴을 닮고 있다.

하의도 주민들에게는 고래로 이 바위에 얽힌 속설 하나가 전해져 내려 오면서 언젠가는 이 곳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생전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아 모처럼 내려왔던 김 전 대통령께서도 "저 큰 바위 얼굴이 나를 닮지 않았느냐"며 그 바위 앞 해안도로에서 기념 촬영까지 했다던가. 그렇게 하의도 주민들은 김 전 대통령이 저 '큰 바위 얼굴'의 전설에 따라 태어난 큰 인물, 영웅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한데 그 하의도라는 섬의 실황인즉, 겨우 총 인구 2천 100여명이어서 택시 2대와 소형 버스 한 대가 대중교통의 전부라고 한다. 전국 면 단위 가운데 아직도 약국이 없는 곳은 이 하의도 뿐일 것이라고도 한다.

현지 주민 한 분은, "지난 4월에 그이께

하지만 서울의 어느 한 교수께서는 바로 오늘, 2009년 8월 23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되고 있는 이 국장 행렬의 장엄한 분위기에만 압도되며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한마디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한의 평화, 사회 통합 등의 과제는 김대중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값진 유산이며, 비록 그이는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지만 그이께서 남긴 이 업적은 앞으로 날로 더 더 휘황하게 빛날 것으로 믿는다"라고, 물론 한마디 한마디 옳은 소리지만, 지금 필자 머리 속에서 는 저 머언 오지, 하의도가 떠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아아, 이 명암(明暗)!!!

김 전 대통령의 아호가 짧았을 적에는 인동초(忍冬草)였는데, 당시 말년에는 후광(後曠)이라는 아호를 애용 했었다. 이 점도 어쩌면 그이 평생 삶과 이렇게도 들 어맞을까. 짧았던 한 때 추운 겨울을 이겨 내는 인동초의 삶을 살다가, 뒤에 말년에 이를수록 온 세상,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  
삼가 웃음을 머미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호철

(예술원 회원·소설가)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를 전담으로 보도합니다.

평화통일과 민족화를 위한 당신의 노력과 열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북극 편안히 가십시오.

이제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가능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가능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가능합니다.

김대중 前 대통령